

Korea-Japan-UK Co-production **ONE DAY, MAYBE** 언젠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프로젝트 'ONEDAY, MAYBE, 언젠가'를 연출한 트리스탄 샵스가 27일 공연이 열린 옛 광주여고에서 출연진들과 연습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
설치·영상·라이브 퍼포먼스... 韓·日·英 공동 장소특정형 공연
9월3일~15일 옛 광주여고... 관람인원 60명 제한

'5월 광주'서 시작... 현재를 지나 미래를 이야기하다

“ 학교라는 희망의 공간서 나는 질문을 던지고 관객은 답을 찾는 공연 ”

연출가 트리스탄 샵스

관람하려면

“언젠가” 공연은 9월3일~15일(평일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4시, 14일은 오후 4시·8시, 9일 공연 없음)까지 모두 13회 열린다. 작품의 특성상 한 회 관람 인원이 60명으로 제한돼 사전 예약을 하는 게 좋다. 티켓 가격은 2만원이며 3·4일, 11·12일 50% 할인. 예매 인터파크·아시아나문의 02-765-6582 www.onedaymaybe.com

9월(3일~15일), 옛 광주여고(광주시 동구 장동)는 이야기를 품은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교실, 체육관, 복도 등 건물 구석구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가 된다. 이 공간에 초대받은 관객들은 30여명의 배우들을 따라 이동하며 작품의 일부로 참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지난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사전 제작 프로젝트 'ONEDAY, MAYBE 언젠가'(이하 언젠가) 연습이 한창인 옛 광주여고를 찾았다. 예술극장 프로젝트와 관련, 워크숍 등의 형태가 아니라 '완성된' 작품 형식으로 일반에게 오픈된 공연은 '언젠가'가 처음이라 문화계의 관심이 높다. '언젠가'는 한국과 영국, 일본이 참여한 다국적 프로젝트다. 한국 공연 제작단체 아시아 나우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일본 고치현립 미술관, 가나자와21세기 미술관, 영국 드립 싱크스피크가 공동 기획·제작했다. '언젠가'는 '장소특정형 공연(Site-responsive Performance)'으로 고정된 무대와 객석 대신, 관객들이 배우와 함께 공간을 이동하며 작품을 관람한다. 연출과 극작을 맡은 영국의 트리스탄 샵스(Tristan Sharp)는 장소특정형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드립싱크스피크의 예술감독으로 15년간 런던 지하철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을 만들어왔다. 설치, 영상, 라이브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

된 작품은 '광주 5월'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지만 광주에만,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당초 제목은 '1980/2013'. 과거를 통해 현재를 거쳐 미래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2011년 첫방문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양동시장과 망월동 구묘역이었다. 양동시장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작은 가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인 시내 변화의 모던한 느낌 역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풍경이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Old&New) 것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차례 광주를 방문하며 보고 경험한 것들을 다 작품 속에 녹여냈다.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광주 역시 1980년과 2013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광주는, 세계는 어떻게 변했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번 작품을 위해 오디션을 거쳐 일본과 한국에서 선발된 배우는 모두 30명. 이날 현장에서는 작곡을 맡은 장영규 음악감독과 함께 연습이 한창이었다. '장소 특정형 공연에서 '장소'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당초 옛전남도청과 사무관 등에서 작품을 공연하려했지만 공사 등의 문제로 옛 광주여고를 낙점했다. "경찰청과 도청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좁고 긴 복도였는데 학교 역시 긴 복도를 갖고 있어서 좋다. 또 5월 당시 시신이 놓여

있던 사무관의 이미지 역시 학교 체육관에서 얻을 수 있어 광주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 학생들이 머무른 공간, 학교라는 집이다. 젊음은 곧 희망이다. 과거에서 시작해 미래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번 작품 역시 새로운 미래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어 공연장으로 딱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작품 줄거리를 소개하는 데도, 배우들의 연기 모습을 노출하는 데도 인색했다. 공연 현장에 와서 직접 느끼고 생각하라는 설명이었다. "일반 야외공연과 다른 건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성과 건축성이 작품속에 그대로 묻어 난다는 것이다. 관객들이 '공간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존 공연이 객석에 앉아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면 이 작품은 관객이 장면 장면의 일부가 돼 상상하고, 생각하면된다. 나는 질문을 던지고, 관객은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다. 관객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바란다." 최석규 아시아 나우 책임프로듀서는 "광주에서 모티브를 얻은 공연이지만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춘 작품"이라며 "서울과 도쿄 등 중앙이 아닌, 광주와 고치현 등 지역예술기관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글로벌 디자인 도시 광주'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 비전 추진계획 시민 설명회'가 28일 오후 서구 치평동 5-18기년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

시민설명회... 10월중 선포식

광주시가 2015년 세계 디자인연맹총회(IDA) 개최를 계기로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에 나서는 등 '글로벌 디자인 도시 광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28일 광주시 서구 5-18기년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배대호 한 '글로벌 디자인 도시 광주 비전 추진계획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세계 디자인 명예의 전당 조성 ▲세계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지역 디자인 거점기관 선정, 지원 ▲아시아 공예 디자인 가공기법 아카이

브 구축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IDA 광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0월 중 시민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세계 디자인연맹총회는 오는 2015년 10월 70여개 국가에서 세계디자인, 디자인 관련 단체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재즈 1세대 "이것이 재즈다"

광주재즈협회, 오늘 콘텐츠산업지원센터 10주년 공연

재즈에 인생을 바친 광주 재즈 1세대들의 무대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광주재즈협회는 29일 오후 7시30분 사직공원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개관 10주년 공연으로 'Gwangju Jazz Association Concert'를 개최한다. 콘서트에 참가하는 팀은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눔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넷 재즈팀'. 한국 재즈 1세대와 동고동락하며 연주활동을 하다가 1996년 최기철 회장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재즈동호회를 결성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중 다양한 개인활동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0년 재결성했다. 팀의 리더 최기철은 미8군 그룹활동을 시작으로 기타, 드럼, 재즈보컬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고 이번 공

연에서는 베이스와 보컬을 맡는다. 트럼펫의 안병철, 기타 최창렬, 피아노 이찬우, 드럼 오태승 등이 함께 한다. 한국 재즈 역사라 불리는 남성 보컬 1세대 김준과 한국 재즈인 최초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이 특별 출연하고 20년간 그룹사운드 활동을 해온 '어썸 플레이스'와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주 그룹도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670-745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김준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

농심역

광동근도로

세우리병원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